

외국인 관광객 여러분, 한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4. 26. 장미란 차관, '2024 한국방문의 해' 환영주간 개막행사 참석
- 주요 한국 여행 정보 알리고 쇼핑·교통편의 할인권과 기념품 전달하며 외국인 관광객 환영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미란 제2차관은 4월 26일(금), '2024 한국방문의 해'를 계기로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환영주간' 개막행사에 참석해 외국인 관광객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방문의해위원회 이부진 위원장과 인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도 함께했다.

개막행사에서는 케이팝 그룹 '프로미스나인'의 활기찬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환영부스 개관 기념식을 진행했다. 장 차관은 환영부스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주요 국내 관광지과 맛집 등 여행 정보를 알려주고 부스 안에 있는 '포토존'에서 기념사진을 함께 찍었다. 또한 쇼핑·교통편의 등 다양한 할인권과 기념품을 담은 방한 기념 '웰컴백'을 전하며 한국방문을 환영했다.

4. 26.~5. 10. 인천, 김포, 김해, 제주국제공항에 환영부스 설치 운영 9월과 10월, 하반기 '환영주간' 운영 예정

이번 환영주간은 일본의 골든위크와 중국의 노동절 등 황금연휴에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4월 26일(금)부터 5월 10일(금)까지 입국 접점인 인천, 김포, 김해, 제주국제공항에서 환영부스를 설치해 운영한다. 환영부스에서는 다양한 경품 행사와 한국 전통 풍속화를 주제로 한 '포토존'을 운영하고 쇼핑·숙박 등 31개 기업과 협업해 마련한 다양한 할인권, 기념품 등을 담은 '웰컴백'을 방한 외래객에게 선물할 예정이다. 또한 영어와 일어, 중국어에 능통한 전담 인력을 배치해 교통과 음식, 쇼핑 등 한국 여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을 친절하게 맞이한다.

아울러 문체부와 한국방문의해위원회는 중화권 국가의 중추절과 국경절의 기간 등과 연계해 9월과 10월에 하반기 환영주간도 운영해 외국인 관광객을 반갑게 맞이할 계획이다.

장미란 차관은 “이번 환영주간을 통해 방한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좋은 첫인상을 가지고 대한민국 곳곳을 즐겁게 여행하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문체부는 더욱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고 다양한 케이-컬처를 즐길 수 있도록 5월에 주요 지역 관광지와 축제를 연계한 ‘케이-팝 플레이그라운드’, 6월에 ‘코리아뷰티페스티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현장 사진 별도 배포 예정

담당 부서	관광정책국 관광수출전략추진단	책임자	과장	김선아 (044-203-2781)
		담당자	사무관	김규영 (044-203-2782)

